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성도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동용 편집: 양재용

전도와 선교를 위한 주일 4시 기도회

교회의 사명이 복음전파에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막 1:38). 이에 우리 교회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와 단기선교를 통해서 국내외의 복음전파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변함없이 교회주변 전도가 실시되었고, 해외 단기선교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영혼을 향한 온 성도들의 사랑(눅 19:10)과 기도를 받은 신(예 5:8)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매주일 오후 4시 갈릴리홀에서 진행되어왔던 '전도 기도회'가 다음 주일부터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확대 개편됩니다. 참석 대상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전파 사역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기도회 후에는 반드시 찬양에 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히 13:19).

일시 : 매주일 오후 4시 장소 : 갈릴리홀

대상 : 168개 전도회 모든 회원

선교기도 후원자 및 참석 희망자

12월 교회일정

6월 (주) 겨울계절과 교신강습회
(12:10, 제1·2교목위원회)
2010년 제2차 CMTC(찬양예배 후)

13일 (주) 겨울계절과 교신강습회
(15:00, 제3교목위원회)
2009년 은퇴자 시상(찬양예배 후)

16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
(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
장기강의(수요2부예배 후)

19일 (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
(14:00, 남전도회)

20일 (주) 성탄절 특설찬양(찬양예배 후)
복합제약(찬양예배 후)

22일 (화) 성탄절의 밤
(18:30, 제1·3교목위원회)

25일 (금) 성탄절 강사예배(9:00, 11:00)

27일 (주) 제6차 역습 · 세례예배(찬양예배 후)
공동의의(찬양예배 후)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후로 인류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자세하게 알려 준다(롬 1:18, 3:20).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롬 3:21~24). 하나님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롬 3:25).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으신 믿는 자들은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 자들로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들이다.

바울은 로마서 5~8장에서 로마서 주제의 후반부인 "참리라"를 설명했다. 5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7장에서는 율법으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7장에서 바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8장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종합해 보면 7장이야말로 8장과 연결되어 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개념은 로마서의 중심 사상과 일치가 된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은 물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율법은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로 하여금 극치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롬 3:19~20).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고 또 그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이는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일이다.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은 율법의 도움이 전혀 없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현실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은 로마서 7장에서 다룬다. 사람들은 혼자 그냥 내버려두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졌을 때에는 그리스도와 맺은 새로운 관계 때문에 새로운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온다. 로마서 7:14~25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율법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음에 설명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 율법을 지켜 의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 것은 바로 그 자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일은 결코 그의 의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없다. 오직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나게 할 뿐이다. 복음은 율법의 의를 세우기 위한 수단 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 그 자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완전하고 충분한 의다. 율법을 떠나서 의로워진 것 그 자체를 말해 준다. 아멘.

MESSIAH'S FAMILY

*The record of the genealogy of Jesus the Messiah,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Matthew 1:1)*

When you read the Bible God is there. It does not make a difference what language you read it in, He is still there. John 1:1~2 say,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To clarify who He is, John 1:14 says,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saw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Do you believe that Jesus, the Messiah, was God from all eternity and yet joined Himself to sinful humanity? Do you realize how great a miracle it was for Jesus to become flesh? The Bible tells us that Jesus the Messiah came to save sinners. Every sinner who gives their life to Jesus through faith becomes a child of God who receives eternal life. Believers are God's children!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become a member of the Messiah's family tree. David sang,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Ps. 18:1~2). Like David, all believers can refer to the Lord as my Jesus, my strength, my rock, my deliverer, my salvation, my shield, and my stronghold! Jesus the Messiah is your Messiah, your God, part of your family tree.

Today's Bible verse is the beginning of a long list of names associated with Jesus' legal, not natural, father. Many of the names mentioned come with godly life stories, but some come with bad and even terrible history. Matthew 1:16 says, "Jacob was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by whom Jesus was born, who is called the Messiah." Jesus was born of Mary only and not of Mary and Joseph,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as follows: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betrothed to Joseph, before they came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by the Holy Spirit"(Mt. 1:18). Jesus was born by a virgin, just as the Old Testament has prophesied,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Is. 7:14). Jesus was miraculously conceived, and God chose Joseph and Mary for His family. The Messiah entered this world through a real human being, and grew up in a real human family. His human family background was not ideal, but it was part of God's perfect salvation plan.

Jesus the Messiah was unique. He was God from all eternity and yet joined Himself to sinful humanity in the incarnation. He was both God and man, who possessed all the attributes of deity, "who, although He existed in the form of God, did not regard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Phil. 2:6), and the attributes common to humanity (apart from sin), and He will exist

forever. Only Jesus could be an adequate Savior; for He was human in order to be able to suffer and die, and He was God to make that death effective as payment for sin. The visible manifestation of God in Christ is amazing! The Bible tells us,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even to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who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Jn. 1:12~13). When you believe in Jesus you become born again. Your new birth is supernatural, containing no human element, nor does it lie within the scope of any human achievement. Jesus is God's 'only begotten' because He is the unique Son in a way totally different from any other who believes and is born as a child of God simply because He is equal with God.

Jesus the Messiah is spiritually amazing. He conquered the world,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is saved. His human family tree contains some kings, prostitutes, faithful people, crooked people, jealous people, righteous people, and all kinds of twisted and humble people. When you look at His family wall, the bricks that contain His human ancestry give us exercise in hope. The acts of these people do not dictate who Christ will be. His life blended the divine and the human. Miraculous things happened as perfect divinity melded to murky humanity. Jesus redeemed a corrupt ancestry. In Christ God formed a person who is able to redeem everyone's family history,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n. 3:16). The Lord told Abraham,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And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Gen. 12:1~2). Jesus Christ's work is to redeem people and make right their line of descent.

My dear friends, as we look forward to celebrating the birth of Christ we are assured as we look back into history that our own family wall of bricks is not the end of the story. The Messiah's redemption awaits humanity, and its advent in the incarnation brings us the indwelling of Christ. Jesus' human ancestry was filled with many problems, but through it came the Messiah. Jesus' ministry focuses on sinners and corrects them. When you look at the Bible more thoroughly and sincerely, you can find your salvation. The Word became flesh, so that now whoever believes in Jesus belongs to His family tree. 2Timothy 3:16~17 say,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profitable for teaching,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adequa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Amen. ▮

다음 주일 설교

메시아의 가족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1)

김성완 목사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쓰인 성경을 읽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니까요. 요한복음 1:1~2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누구인지 요한복음 1:14은 명료하게 밝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그 자체이신 분이시며 죄악 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린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계보에 한 일원이 됩니다.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나의 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쉴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 18:1~2).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신자는 주님을 향해 나의 예수님, 나의 힘, 나의 바위,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산성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세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의 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닌 법적인 아버지와 관련된 장황한 명단이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언급된 이름 가운데 많은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악하고 심지어 끔찍한 일들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6은 말씀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세스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세스 사이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세스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마 1:18).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처럼 동정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예수님의 잉태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세스와 마리아를 그분의 가족으로 택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실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실제 인간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주님의 가정 배경은 실제와 거리가 먼 이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의 일부였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성육신을 통해 스스로 죄악 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셨습니다. 곧 예수님은 신의 모든 속성과 죄를 제외한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빌 2:6).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

다.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통과 죽음을 느끼는 인간이셨으며 그 죽음을 죄에 대한 대가로 합법화할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현시는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남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의 어떤 업적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완전히 구별된 방법으로 나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주님의 혈통적인 계보 안에는 왕들과 장녀들, 신실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시기하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뒤틀리고 비천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보를 볼 때 주님의 혈통적인 조상에 포함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소망을 줍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누구인지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은 신성한 것과 인간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한 신성을 보여 주는 이적들이 지저분한 인간의 삶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조상을 속량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가족사를 속량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여호와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1~2).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들을 속량하고 그들의 계보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족사를 돌아보면서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구속이 인류를 기다리고 있고 성육신을 통한 주님의 강림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과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구석구석 꼼꼼하게 살펴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의 가족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16~17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11. 25)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21-28)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였다. 심지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있었다(마 14:34~36).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접한 종교지도자들은 급히 게네사렛으로 왔다(마 15:1). 그들이 온 이유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다. 기적으로 인해 사자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듯했기에서 자칫 자신들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보다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았다(마 15:2). 이에 예수님은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종교지도자들의 외식을 정확히 지적하였다(마 15:7~9).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하였다. “겉은 깨달아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 15:10~11). 그럼에도 제자들은 종교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폈으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깨우치셨다(마 15:12~14). 이후에 예수님은 이방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마 15:21). 이미 두로와 시돈에는 예수님이 게네사렛에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그리고 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다. 그녀의 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였다. 더구나 여자였기에 가나안 여인은 가장 천대받는 부류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여인(참 31:28~31)이었다. 가나안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 문제가 많은 여인 가나안 여인은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다. 가나안 여인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왔다. 그녀는 어떤 예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마 15:22).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다. 그녀에게는 조금의 자존심도 없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매달려 자비를 갈망하였다. 주님은 자비를 갈망하는 곤고한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시 34:6).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외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시 61:2).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굳게 믿었기에 자

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매달렸다.

● 포기하지 않는 여인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었다. 분명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측은히 여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해서 말했다(마 15:23).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민의식을 가진 어느 유대인들처럼 말 씀하셨다(마 15:24).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모습이었다(창 12:1~2). 예수님은 계속해서 냉담하게 반응했지만 가나안 여인은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께 호소했다. “주여 제를 도우소서”(마 15:25).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마 15:27). 개 이하로 취급받았 을지라도 그녀는 화를 내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자존심이 없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였고, 그 이유도 믿었으며 그대로 실천하였다(롬 10:9~10).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다(마 21:22).

●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마 15:28). 이 놀라운 약속을 받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인가?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가?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오랫동안 힘썼는가? 아니다. 가나안 여인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이방인이었기에 율 법과는 상관이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에는 장애가 될 뿐이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었을 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여인은 단순히 그것을 했던 것이다(요 6:29).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히 11:6).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실력, 경험을 의지하여 명예와 공적을 쌓는 데 정신을 팔고 있지 않은가? “다른 것을 찾지 말라!” 진심으로 회개하자.

가나안 여인의 가정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때 그녀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매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기에 밤에 속에서도 포기 하지 않았고 결국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았다(벧전 3:7).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는가? 그것이 온 분봉하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가게 하소서.” 아멘.

메시아의 죽음 11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마가 복음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의의였던 누가는 논리정연하게 사건을 배열하였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שה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 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눅 1:3). 누가복음 22:54~23:1 말씀과 마가복음 14:53~15:1 말씀은 동일한 사건 즉, 예수님이 종교인들에게 심문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마가복음은 한 날에 일어난 일처럼 서술하였다(마 15:1).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 사건들이 이틀에 걸쳐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눅 22:66). 이처럼 누가는 메시아의 수난 과정에 대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최후를 당한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대제사장과 온 공회와 예수님을 괴롭혔다고 밝힌 것(막 14:55)에 반해 누가복음은 대제사장을 뺀 선전 군인들의 소행(눅 22:63)이라고 서술하였다. 대신에 누가는 자신의 또 다른 성경인 사도행전에서 고난 사건을 보충하여 설명하였다(행 6:11~14).

특히 누가는 마가복음 외에 특별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누가복음 23:2~25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2~20 말씀에는 유대총독이었던 빌라도만 언급하였을 뿐 헤롯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페리야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세례 요한을 죽인 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 안디바에게 갈릴리 사람임을 알고 판결을 내리기를 거부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내었던 것이다(눅 23:1~7). 누가는 이 심

문 과정 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눅 23:12)고 밝혔다. 헤롯은 유대인으로 갈릴리를 다스리는데, 빌라도는 로마인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에 서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심문하는 과정에서는 이들이 친구가 되었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한 죄목은 세 가지였다(눅 23:2).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밝혔다(행 24:5~6).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기에 당시 관계가 불편했던 헤롯에게까지 의뢰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을 때 베스도 유대총독과 헤롯 안디바의 모습과 비슷하다(행 26:1~7, 23:29). 여한은 빌라도와 헤롯의 결론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메시아를 대항하며 율법을 철저히 연구했던 종교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재촉하였다(눅 23:23).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참으로 역설적인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당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무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며 메시아를 대항하며 살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회복을 이를 강력한 메시아를 꿈꾸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방법은 겸한 십자가였다. 그런데 우리도 겸한 십자가를 거부한 채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철저히 외면하며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회개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좁고 험한 고난의 길로 나아가자. “최후 승리 얻기까지 겸한 십자가가 붙들겠네.” 아멘.

*매주 필요성까지도(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증인들의 항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2010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 모두는 '가을 성교사 보내줄 성교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높은 담장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예수님을 소개하겠다고 하면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그들은 대부분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비쁘다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들에게 우리의 어눌한 말로 십자가 복음과 부활과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다고 하면서 열절기도까지 시키면 "아멘"하고 잘 따라주었다. 우리를 안아주며 환한 웃음으로 대해주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계셨고, 우리가 길을 몰라 해맴가 손짓으로 길을 가리키며 끝까지 지켜보던 할머니도 잊을 수가 없다.

김순자(집사, 23교구)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동차로 7-8시간 걸린다는 소리를 듣고 사막의 첫 여정에 올랐다. 저녁이 되자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곳이 길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을 정처없이 달려갔다. 사막 한가운데 널부러져 있는 짐승의 뼈다귀와 말과 여러 짐승들을 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러나 막상 사막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는 세 개 조로 나뉘어져 흩어져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자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었다. 그들은 순수했고, 우리도 열심히 전도지를 쫓아가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쳤다. 날씨가 더우면 구름기둥을 보여주었고, 가는 곳마다 순간 순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꼈다. 인간의 생각대로 먼저 판단하고 미리 걱정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최이희(집사, 21교구)

복음을 전하는 발

어느 사역지에서 한 자매가 예수님을 들어보았다고 하면서 찢어지고 별레 먹은 진흙 투성이의 구멍난 성경책을 집안 구석에서 가지고 나왔을 때 저는 '누군가 이곳에 복음을 앞서 전했고 이제 주님의 시간에 내가 이곳에서 쓰임받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후 흘리신 예수님을 복음는 것처럼 그 성경책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성경책 겹표지를 물로 씻으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으며 복음을 전했다 그들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책이니 꼭 매일 한 장씩 읽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별레 먹어 구멍난 성경책! 마치 선교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다치 한 번 기도드렸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소서! 죄악투성이지만 회개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과 절절한 열을 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소서."

김성택(집사, 7교구)

전하지 않으면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우리의 60~70년대가 생각났다.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먼저 전도대상이 되었다. 그러다가 들어간 한 집에서 순진하게 보이는 한 영혼을 보았다. 삼하수도 사실도 없고 경지도 없고 앉으라고 치우주는 마부는 지지분했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25일(수) - 12월 3일(목)	14교구 3팀	김춘광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2월 1일(화) - 12월 9일(수)	13교구 3팀	김철남

다. 경전회 때 불렀던 찬송가에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니"란 가사가 떠올랐다. '그렇구나. 그 가사처럼 전해야 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란 생각에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왔다. 한번은 10여 명의 식구들이 모여 있던 어느 집에 말씀을 전한 뒤에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나오려는 순간 그 중 한 사람이 "아멘"으로 대답하였을 때 정말로 감사했다.

김광일(집사, 15교구)

회개와 감사의 눈물

굵은 비와 쌀쌀한 초겨울 바람이 새채게 불었다. 빗물이 고여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려 한 마을에 도착했다. 추운 날씨에 한기를 느껴 따뜻한 집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감사하게도 차에서 내리자마자 밝은 미소의 17세 소녀를 만났다. 우리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소년을 안으며 인사하려던 순간 멈춰 할 수밖에 없었다. 소녀의 팔과 목의 피부가 짓눌려 고름이 흐르고 파리와 모기가 땀줄고 있었다. 주님은 내 죄를 위해 최고의 수모와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런 모습에도 인간적인 갈등을 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게 내 모습이었다. 이렇게 어리석은 나는 곧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 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이라는 찬양을 두 번만에 따라부르며 주기도문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순한 영혼을 보았기에, 주님이 예비하신 땅을 만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에...

선우성삼(집사, 24교구)

성령님의 역사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주실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선교에 동참하였다. 발이 닿는 곳이 바로 주님이 예비한 곳이라 확신하며 사역지에 도착하니 놀라울 정도로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었다. 성령님께서 앞서 가셔서 준비하고 계셨다. 특히 어린이들의 깨끗하고 맑은 눈동자를 보며 '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일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저토록 많은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이야말로 성령님의 역사이었다. "주님, 어떻게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요, 주여, 감사합니다."

이순자(집사, 11교구)

욕심을 버리고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의 영혼들을 기억하려고 특징을 적었고, 그 영혼들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너무 속상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서만 역할을 해야 했는데, 나는 그들을 더 이해하고 싶었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영접했으면 하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 영혼들에게 집착하는 나 자신의 모습에 너무 힘들었고, 나로 인해 다른 팀원들의 사역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 너무 속상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회개와 감사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 내가 어떤 것을 정말 먼저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알게 해 주었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 힘을 주셨다. 나의 부족한 언어로 예수를 전하였지만 주님께서 각각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두드리셔서 그들에게 진자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해 주시고 체험시켜 주실 것을 소망한다.

이나현(대학부)

2010년

교회 주요행사 일정

날 짜	행 사 명	날 짜	행 사 명	날 짜	행 사 명
1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1 (금) 신년감사예배 3 (주일) 성찬식 (1차) 6 (수) 정기당회 31 (주일) 선교주일	7 (수) 25 (주일)	정기당회 학습세례식 (2차) 장애인주일	8 (수)	교회설립기념 특별찬양예배 제72기 교사양성부 개강 (11/21 종강) 제42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11/21 종강) 정기당회 수요성경공부 2학기 개강 (11/24 종강) 후반기 총현전도대 훈련 (11/24 종강)
2월	겨울성경학교 / 겨울수련회 전반기 총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경로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10 (수) 정기당회 17 (수) 제의 수요일 (사순절 새벽기도회 시작) 26 (금) 청지기훈련 (1차) 28 (주일) 학습세례식 (1차)	5월 2 (주일) 12 (수) 23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4차) 어린이 · 어버이주일 (가족연합예배) 정기당회 성령강림주일 (오순절)	10월 6 (수) 15 (금) 20 (수) 22 (금) 24 (주일) 31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정기당회 파택장로 (주제발표) 임직예배 (장로/안수집사/권사) 청지기훈련 (3차) 학습세례식 (5차) 종교개혁주일
3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7 (주일) 성찬식 (2차) 제71기 교사양성부 개강 (5/23 종강) 제41기 찬양대원양성부 개강 (5/23 종강) 10 (수) 정기당회 (일꾼 추천) 수요성경공부 1학기 개강 (5/26 종강) 전반기 총현전도대 훈련 (5/26 종강) 21 (주일) 일꾼 후보 공고 (주간총현) 28 (주일) 종려주일 (가족연합예배) 공동의회 (일꾼 투표) 29~4/2(월-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6월 6 (주일) 9 (수) 13 (주일) 18 (금) 27 (주일)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제절학교 교사강습회 (제1·2·3교육위) 정기당회 제직회 청지기훈련 (2차) 학습세례식 (3차)	11월 7 (주일) 10 (수) 21 (주일)	신년도 예산안 심의 신년도 직분자 심의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7차) 정기당회 추수감사주일 (가족연합예배) 추수감사 특별찬양예배
4월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2 (금) 성금요일 (성찬식 3차) 4 (주일) 부활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예배 파택자교육 개강 (9/25 종강)	7월 4 (주일) 7 (수) 8월 4 (수) 22 (주일) 9월 5 (주일)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5차) 맥추감사주일 정기당회 여름성경학교 / 여름수련회 단기선교팀 파송 후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정기당회 학습세례식 (4차) 대심방 단기선교팀 파송 성찬식 (6차) 교회설립 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12월 5 (주일) 8 (수) 15 (수) 19 (주일) 23 (목) 25 (토) 26 (주일)	절기구제 (성탄) 단기선교팀 파송 제절학교 교사강습회 (제1·2·3교육위) 정기당회 임시당회 (예/결산) 특별 제직회 은퇴자 시상 성탄축하 찬양의 밤 (제1·3교육위) 성탄절 감사예배 학습세례식 (6차) 공동의회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드는 자

저는 그동안 청년2부를 몇 해 출석하면서 교회
의 조직과 행사가 기획이나 구성면에서 엉성하
고 느꼈습니다. 해가 변해도 개선되지 않는 낙후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
맘 때쯤 다음 해의 봉사부서를 정할 때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해 보리라." 그것도
완벽하고 치밀하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멋지게 말
입니다. 결국 면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저의 각오
는 '하나님의 뜻'의 자의적인 해석과 더불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가 생각
하고 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수록 일은 더
욱 꼬여만 가는 듯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
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번번히 부딪히는 어려움 속에
서 저는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주님께 진정
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은 그때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비하
는 일들은 오히려 세세한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너무나 순조롭고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예
전부터 매사에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한 내 자
신이 너무나 미련해 보였고, 주님께도 너무나 죄송
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마음
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인내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으로는 잘 안 보였지만 지난 한 해가 제게는 열
적으로 많은 고민과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 은혜
도 감사한데 이토록 보잘것없는 죄인을 율에는 정
년2부 교사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마도 맡겨주
신 은혜로 인해 더욱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
기 위해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난 한 해 동안도 단
련시키신 듯합니다. "주님, 이제는 사람들 보기에
좋은 행동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귀한 진정한 십자
가의 복음만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재석(집사, 청년2부)

이제는 내 품안에서 올라라, 내 안에서 쉬어라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이 생각납니다. 새 책가방에, 처음 맞는 담임선생님, 처음 불러보는 교과와 처음 배우는
것에 대한 설렘과 신기함 등등. 첫 담임선생님에 대한 기대감과 배움의 과정들을 새가죽양육부를 통해서 느꼈습
니다.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 대해서 배우며, 또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었습니
다. 매주 은혜로운 시간, 은혜 충만한 말씀에 한 주 한 주 새 삶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새가죽 분반공부까지 마
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배가 불렀습니다. 주일 3부예배 때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소중한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사랑의 음성이 담긴 기도도 무엇이 마음 든든한 삶의 희망을 가득 충전 받고 나온 것 같아 그냥 배가 불렀
습니다.

새가죽양육부는 저에게 동태였습니다. 무섭고 캄캄한 바다에서 환한 빛 하나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를 인
도해 주신 주님의 축복의 빛, 사랑의 불빛으로 믿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하
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교회를 다니며, 새가죽부양육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며 공부할 때마다 예수
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품 안에서 올라라, 내 안에서 쉬어라"고 말입니다.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회의 눈물, 예수님
을 사랑하는 눈물, 림들이 지친 저의 눈물...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뜨거운 가슴에 예수님께서 이
제는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 늘 따뜻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사랑을 제가 너
무나 늦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 저를 가까이에서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사랑, 이제는 저도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동태의 불빛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
는 가장 앞에 이제는 항상 성경책이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제 인솔이, 제 마음이 신실할 수 있도록
예수님 품 안에서 늘 함께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
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죽양육부에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음에 감사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성경을 찾는 방법도 몰
랐고, 주기도문도 제대로 못 외웠고, 아는 찬송도 거의 없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직
도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많이 읽으며 믿음의 성장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주아(성도, 새가죽양육부)

십자가의 길

기 도

기도하는 척하기란 어렵지 않다.

점잖고 우아하게 기도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진심이 엄청난 탁구를 받기까지 기도하며,

두려운 철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이며 햇살이 비칠 때까지

진정으로 기도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아직만 이것은 본영 아나님의 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동이다.

기도하는 손과 머리, 마음의 수고는 절대 잊되지 않다.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 데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다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아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도 응답의 기쁨은 산통을 견딘 어머니의 기쁨이며,

사슬을 벗고 새로운 삶과 자유를 얻은 노예의 기쁨이다.

기도는 강아다.

E. M. Bounds

♡ 새 가 족 을 환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87	최미라	16	고등부	김신자(8)
1488	최형욱	1	고학부	
1489	서은하	1	시도	
1490	하시준	1	초등2부	
1491	박성현	2	장년4부	박철구(9)
1492	채두환	8	대학부	김미숙(8)
1493	홍은옥	1	장년1부	남명희(9)
1494	김현주	8	고등부	김신자(8)
1495	황은경	22	청년1부	
1496	엄기백	22	청년1부	박신영(22)
1497	이선영	20	청년1부	권성연(16)
1498	홍차영	2	청년1부	홍경숙(19)
1499	이소별	1	장년1부	
1500	최원태	13	고등부	정희주(13)
1501	조혜경	10	청년1부	김현도(9)
1502	장지혜	8	고등부	박민주(19)
1503	김지희	12	청년1부	이경진(8)
1504	정영배	18	청년2부	이창애(2)

* 충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09 충현교회 Publi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